

# 케빈 나의 '역전 드라마'... 통산 5승 달성 손흥민 100번째 공격포인트

### PGA 소니오픈 한타 차 우승... 상금 118만달러 받아 한국 이경훈 19위·김시우 25위·임성재 56위 마무리

재미교포 케빈 나(3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케빈 나(38)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총상금 66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케빈 나(38)는 크리스 커크(미국), 호아킨 니만(칠레·이상 20언더파 260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18만 8000달러(약 13억 1100만원)다.

케빈 나(38)는 2019년 10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 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케빈 나(38)는 브랜던 스틸(미국)에게 두 타 뒤진 공동 2위로 이날 4라운드를 시작해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전반까지는 스틸의 선두 수성 분위기였다. 케빈 나(38)는 2번 홀(파4) 4.5m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한 타 차로 압박했으나 스틸은 7번 홀(파3) 버디로 다시 두 타 차를 만든 뒤 9번 홀(파5) 이글로 기세를 올렸다. 케빈 나(38)도 같은 홀에서 버디를 낚아 세 타 차로 스틸을 뒤쫓았다.

한때 공동 2위에서도 밀렸던 케빈 나(38)는 13번 홀(파4) 버디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 14번 홀(파4)에서 스틸이 어프로치샷 실수로 보기를 적어낸 사이 케빈 나(38)는 버디를 추가하며 4명의 공동 선두에 합류했고, 15번 홀(파5)에서도 한 타를 더 줄여 순식간에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케빈 나(38)는 18번 홀 세 번째 샷을 50cm가량에 벌인 뒤 버디를 잡아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우승 뒤 방송 인터뷰에서 18년의 투어 경험을 역전 우승 원동력으로 꼽은 케빈 나(38)는 한국어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승해서 기쁘고, 언젠가 또 한국에서 뵈겠다"며 한국 팬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 선수 중엔 이경훈(30)이 15



PGA투어 소니오픈에서 통산 5승을 달성한 재미교포 케빈 나. 연합뉴스.

언더파 265타, 공동 1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이경훈은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쓸어 담고 보기 1개를 묶어 6타를 줄이며 순위를 20계단 끌어 올렸다.

김시우(26)는 공동 25위(14언더파 266타), 임성재(23)는 공동 56위(9언더파 271타)에 자리했다. 최경주(51)는 71위(5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씨 당선

### 득표율 46.4%... 재선 성공

이기흥(65) 현 대한체육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4년 더 체육회를 이끈다.

기호 3번 이기흥 후보는 18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974표 중 915표를 획득해 절반에 육박하는 46.4% 높은 득표율로 세 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기호 4번 강신욱 후보가 507표(25.7%), 1번 이종길 후보가 423표(21.4%), 2번 유준상 후보가 129표(6.5%)를 각각 받았다. 선거인단 2170명 중 197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4년 전 선거 때(63.49%)보다 훨씬 높은 90.97%를 찍었다.

체육회 대의원, 회원총동맹,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임원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이 회장이 주도하는 안정과 변화를 택했다.

유준상-강신욱 단일화, 이종길-강신욱 단일화 협상이 각각 무산된 뒤

후보들은 완주를 선언해 '반(反) 이기흥'으로 결집해야 할 표가 뿔뿔이 흩어졌고, 이기흥 회장은 여유 있게 선거에서 승리했다.

90%가 넘는 정도의 뜨거운 투표율과 이기흥 회장 대신 다른 이들을 찍은 53.6%의 표가 이를 반영한다.

이 회장은 체육인 교육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체육인 인성 교육을 임기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육 정책을 총괄할 총리실 산하 국가체육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협의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체육회의 분리·통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간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상심한 체육인들의 마음을 사 다시 한번 체육회를 이끌 기회를 얻었다.

이 회장은 또 4년 연임에 성공해 70년(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2024년 강원 동계유스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전주 KCC 독주체제 언제까지...

### 프로농구 후반기 레이스 돌입

10연승 행진으로 '독주'하는 프로농구 전주 KCC가 하위권 팀들과 3연전으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한다.

프로농구는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19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10개 팀은 총력전에 들어간다.

4라운드에 들어선 현재 선두 자리는 KCC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21승 8패인 KCC는 2위(18승 12패) 고양 오리온과 승차를 3.5경기 차로 벌려 뒀다.

타일러 데이비스(10.6리바운드·2위), 라건아(8.8리바운드·4위)가 버틴 KCC 센터진은 압도적이다.

'킵틴' 이정현이 견제한 가운데 송교창은 리그 국내 선수 중 득점 1위(15.3점)를 달리며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적시 적소에 맞춤형 전술을 들고나오는 전장진 감독의 지략까지 더해져 KCC는 10연승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KCC는 19일 홈에서 9위 창원 LG를 상대하고, 이어 21일 원정에서 7위 서울 삼성, 24일 홈에서 8위 서울 SK와 대결한다.

올 시즌 KCC에 2승을 거둔 '유이'한 팀이 LG와 삼성이다. 두 팀 모두 1, 2라운드에서 KCC에 연패를 안겼다.

KCC의 최근 LG전 패배는 3점 4개를 포함해 25점을 올린 김시래를 막지 못한 탓이었다.

삼성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이정현을 만나면 더 열심하는 이관희에게 3점 3개를 포함해 23점을 내주는 바람에 졌다.

KCC는 이들 국내 슈터들을 효과적으로 묶어야 수월하게 연승을 이어갈 전망이다.

LG는 새로 합류한 테리코 화이트가 휴식기 동안 팀 전술에 얼마나 녹아들었느냐가 하위권 탈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CC 추격에 고삐를 죄는 오리온은 22일 원주 DB를 홈으로 불러들여 4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EPL 아시아 선수로 최초 세필드 원정 45년 만의 승리

손흥민(29·토트넘)이 도움을 추가하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손흥민은 17일 영국 세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세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5분 코너킥으로 세르주 오리에의 선제골을 도왔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18번째(12골 6도움), 공식전을 통틀어서 25번째(16골 9도움) 공격 포인트다.

이 도움으로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EPL에 진출한 이후 정규리그 65골 35도움을 기록, 리그 통산 공격 포인트 100개도 채웠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EPL 공격포인트 100개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자,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7번째 기록이다.

토트넘은 세필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무 4패의 부진을 보이던 8경기 만에, 기간으로는 1975년 12월 이후 약 45년 만에 값진 승점 3을 따냈다.

전반 4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오리에가 머리로 받은 공이 골 문틀을 흔들며 선제골이 됐다.

손흥민은 전반 8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침습을 시도해 골문을 노렸으나 골대를 맞혀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풀타임에 이어 또 한 번의 '골대 불운'이었다.

토트넘은 전반 40분 케인의 추가골에 힘입어 우위를 이어갔다.

토트넘은 후반 14분 데이비드 맥골드릭에게 헤딩 골을 허용했지만, 3분 뒤 탕기 은폼벨레의 '원더 골'로 세필드의 고무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합뉴스.



황의조의 몸을 날려 슈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톱의 정석 황의조 시즌 3호골 '황'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의 황의조(29)가 시즌 3호 골을 폭발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황의조는 18일(한국시간) 프랑스 니스의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끝난 니스와의 2020-2021시즌 리그1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5분 보르도의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황의조의 시즌 3호 골(2도움)이자 3경기 만에 올린 득점이다.

보르도는 황의조의 골에 후반 30분

나온 파울 바이세의 추가골 등을 더해 3-0으로 이겼다.

4-2-3-1 전형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황의조는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슈팅 기회를 찾아 나갔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원톱의 정석'을 보여주는 황의조는 3번째 득점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황의조는 후반 5분 야신 아들이라 오른쪽에서 넘겨준 땅볼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했다. 연합뉴스.

## 제주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 26대·27대 회장 이·취임식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 이사회, 정기총회, 신년하례회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과 협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시간 검색 **YouTube** "이기창22"로 들어오세요. **1월 19일 18시에 열립니다**

**이사회 자료가 필요하신 동문께서는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755-7942**



**이임회장**  
정승영 (21회)



**취임회장**  
이기창 (22회)



**취임 수석부회장**  
문성중 (23회)



**취임 총무부회장**  
양경필 (24회)

2020년 자랑스러운 일고인			
가수	성명	수상부문(공적사항)	가수
13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 당선	21
14	이방호	제28회 제주상공대상(경영부문)	정승영
	김봉욱	황조근정훈장	문원일
	김대원	황조근정훈장	송재호
	김윤중	황조근정훈장	강정식
	고형근	황조근정훈장	23
	김홍배	황조근정훈장	문성중
	송성훈	황조근정훈장	24
	문동주	황조근정훈장	배신규
	김수재	황조근정훈장	28
	최동석	황조근정훈장	현진성
	김대호	황조근정훈장	고용현
	고영욱	황조근정훈장	29
	강상국	황조근정훈장	채진원
	재철성	황조근정훈장	고태남
			양남부

2020년 유공동문			
가수	성명	수상부문(공적사항)	가수
14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	21
	이진석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장	정승영
24	김용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문원일
	강승철	제주특별자치도 부이사관 진급	송재호
	현원필	추자중학교 교장	강정식
	강우준	회관건립기금납부 공로(1,000만원)	23
	송재홍	한림고등학교 교장	문성중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부이사관 진급	24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부이사관 진급	28

2020년 모범동창회			
가수	성명	수상부문(공적사항)	가수
20	우용구	총동문회장	21
21	정승영	수석부회장	정승영
22	이기창	총무부회장	문원일
23	김기홍	회관건립부회장	송재호
24	오수훈	재정부회장	강정식
25	고성찬	조직1부회장	23
26	김홍민	홍보부회장	문성중
27	강홍우	기획부회장	24
28	고봉수	조직2부회장	28
29	이창주	체육부회장	현진성
30	홍성훈	대외협력부회장	고용현
31	허성우	모교지원부회장	29
32	김영욱	미디어부회장	채진원
33	김동훈	문화부회장	고태남
34	김동욱	조직3부회장	양남부
35	송기택	직능부회장	
36	고대선	국제부회장	

**제주제일고등학교총동문회 이임회장 정승영 · 취임회장 이기창**